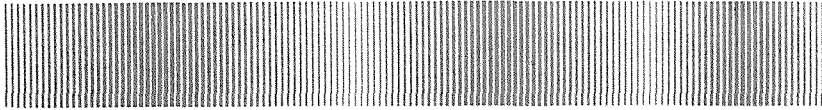


# 회교경제의 본질과 전망



—대한석유험회 홍보실—

**세계경제와** 정치속에서 회교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 회교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敎義의 기본적인 부분과 현대에 있어서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회교경제의 기본사상은 경제는 회교의 이상실현을 위한 도구이며 그밖에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와는 차이점이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상에 반하지 않는 한, 현실경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가지 변화는 받아 들이는 유연한 一面도 있다.

회교권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70년대의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거쳐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현재 세계 회교도수는 약9억2천만명으로 전인구중 회교도가 절반이 넘는 나라는 세계 40개국에 이르고 있다.

회교권의 자유세계에서 차지하는 GDP(국내총생산)비중은 70년대에 3% 정도이던 것이 83년에는 7%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는 그동안 석유收入증대로 페르시아灣岸제국등 회교권의 收入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중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가봉을 제외한 10개국이 회교국이다. 이 10개국에서 OPEC 石油 수출의 약 88%를 차지하여 OPEC중 회교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회교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GDP비중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OPEC의 자유세계에서의 석유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79년의 64%에서 84년에는 39%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IEA(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석유 전문가들은 OPEC의 풍부한 석유매장량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 석유수급핍박과 함께 「OPEC시대」가 다시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美國에너지부는 오는 95년에는 OPEC 비중이 다시 50%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세계에서 차지하는 회교의 경제적 영향력은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이 세계경제에서 회교권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으나, 문제는 회교권의 경제체제가 다른 자본주의제국과 차이점이 두드러지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 양진영의 여러가지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교에서는 이자를 「不勞所得」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회교은행에서는 어떤 거래도 「금전對금전」이 아니라, 반드시 「물건對물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주택임대에 있어서도 은행은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집을 사서 주택구입자에게 인도하고 은행과의 거래분을 상승된 금액으로 수십년에 걸쳐 회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회교와 非회교경제교류가 늘어날수록 이런 차이점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회교채무자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벌어지는 소송의 경우, 자본주의 제국의 금융기관은 회교법원에서 거의 패소하며 채무회수에 애를 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면 非회교도는 회교의 현대경제에 대한 사고방식과 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까. 회교측에서 말하는 「올바른 이해」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회교의 경제관, 자본주의관이 문제가 된다.

이 점에 대해 카말 핫산교수(국제이슬람대학)는 「우선 기본적 태두리로서 현대경제구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회교에는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부분은 「유일절대神에 대한 신앙」이다. 알라神은 단순히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활을 규정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코란, 샤리아(회교법) 등에 기록된 신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를 경제면에서 보면, 코란의 기본적인 사상은 회교 공동체의 이상인 사회정의,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자유경쟁에 의한 상업발전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회교의 사회정의」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한 불로소득으로 보이는 이자나 투기행위등의 자본주의경제구조는 항상 「타락」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회교가 反西歐적인 것은 아니다. 西歐가 대표하는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부분에만 반발할 뿐, 서구문명의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한교수는 말하고 있다.

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두가지로 大別될 수 있다. 하나는 코란에 있는 회교발전과 과학기술진보에 대해 유효한 부분이다. 아라비아제국이 중세까지만 해도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의 최고봉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대에도 歐美지역에 대한 유학열이 매우 높으며, 젊은이들은 서구기술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또 하나는 코란과 샤리아에 해결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회교법을 어떻게 응용하는가는 상황, 시대, 개인,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앞에서 「변하는 부분」이란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투기나 이자에 대한 「응용」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국환과 상품에 대한 투기는 현대경제의 중

요한 일부분이며, 「개인이 각기 자기가 모은 재료를 토대로 거래하는 한, 이것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투기에 관해서는 현금거래가 어디까지나 원칙으로 현금이 뒤따르지 않는 「空賣」등의 행위는 회교에 反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체적인 점에 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의가 엇갈리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나온 미묘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이자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제국과 마찰이 크지만, 회교권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금융기관과 채무자와의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것은 종래의 회교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응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회교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국제적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자본주의경제의 영향을 보다 강하게 받아 지금까지 이상으로 「응용」이 확대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교공동체가 이상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나아갈 것인가. 후자의 움직임을 대표하는 이른바 「회교원리주의」운동이 있다. 이것은 회교사회, 특히 경제분야에서 「회교불변의 원칙」에 비중을 두어 현대경제에 대한 지나친 적응을 반성하려는 것이다. 아라타스 교수(싱가포르국립대학)에 의하면, 회교의 俗化를 막으려는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서구제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시대에 썩이 트기 시작했다. 79년 이란의 회교혁명은 그 一例라고 말한다.

앞으로 회교경제의 흐름은 회교의 「원칙」과 자본주의 세계의 「응용」을 조화시키면서 스스로의 중요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

〈日本經濟新聞 11. 21〉

